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20) 관련 논평

1.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인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불임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3. 이에 귀 사의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임. 논평 끝.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수신자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담당	김기홍(제주퀴어인권연구분과장)	대표	최석윤
시행	인권왓-181120	접수	
우(690-029)	제주시 충효1길 17-1		
전화번호	0	이메일	j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논평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20) 관련 논평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트랜스젠더와 제주의 퀴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의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살해는 단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뿐 아니다. 2014년 SOGI 법정책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자살시도율은 48.2%로 전체 인구의 자살시도율 대비 수십배 높다.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적 대상화, 조롱, 위협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에서도 배제되거나, 취업한 직장에서도 아웃팅과 조롱 등에 처해 있어 더욱 더 삶에서 벼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어 학교의 성적 소수자는 정체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밖으로 내몰린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아웃팅이나 상담 과정에서 2차 가해에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수많은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소수자의 평화와 권리를 적극 옹호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는 정치적 표 계산보다 앞서서 해야 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존엄의 문제다. 정부는 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당장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의 생존 문제에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1. 20.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퀴어인권연구분과)

끝.